“부처님 · 스님 · 도반 또 만나요!”

서울 조계사 청년 단기출가 회향
담화 스님, 청년들에 수행증 수여
“또래와 함께 수행한 소중한 추억”

김내영 기자 rlasodud0994@naver.com


조계사 청년 · 대학생 단기출가에 참가한 청년들이 4월 30일 열린 회향식에서 대승원력 10계를 합송하며 절을 하고 있다.

“저는 공양간의 빈 그릇입니다. 저는 풍경을 스치는 바람입니다. 저는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수행자입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참가자 소감 발표 中)

무한 경쟁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9명의 청년이 출가 체험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는 지혜의 방향을 찾았다. 스님의 일상을 몸소 체험한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 돌아가서도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물러섬 없이 정진할 것을 서원했다.

서울 조계사(주지 담화 스님)는 4월 30일 경내 관음전에서 ‘청년·대학생 단기출가 수계 회향식’을 열고 5박 6일간의 수행 일정을 마무리했다. 단기출가에 참가한 9명(남자 5명·여자 4명)의 청년은 4월 25일 입재를 시작으로 새벽 예불, 습의, 경전 강의, 운력, 삼보일배 등을 경험했다.

주지 담화 스님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수행자의 삶을 진심으로 경험한 여러분이 자랑스럽다”며 “이 소중한 시간을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도 정진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부주지 탄보 스님은 9명의 단기출가 참가 청년을 향해 “여러분들은 부처님 눈으로 살아가는 지혜의 눈을 얻었다”며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고 내 인생의 의미를 밝혀서 나와 인연 맺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보살의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속세에 다시 돌아가면 욕망의 소용돌이에 빠지고 무가치한 순간으로 점철되기 쉬운데 그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연하게 부처님의 길을 걸어가라”며 “조계사에서의 소중한 경험이 사회 모범이 되고, 자비 지혜 행자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님의 법문을 들은 9명의 청년은 대승원력 10계를 합송하며 ‘바른 관점으로 치우침 없이 세상을 바라볼 것’ ‘말로만 내세우지 않고 실천으로 불교를 전할 것’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부처임을 명심할 것’ 등을 다짐했다. 이어 교수사 종무행정지원단장 성해 스님, 신도지원단장 원지 스님이 참회진언을 외고 있는 청년들의 팔에 향으로 연비했다.

담화 스님은 연비의식을 마친 청년들에게 수행증과 삼귀의계·오계·대승원력 10계 수계증을 수여했다. 흔들림 없는 불자의 길을 응원하며 장학금과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선물인 108염주와 저서 등도 전달했다.

청년들은 단기출가가 또래와 함께 수행하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배움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돌아봤다. 신정윤(법수) 씨는 “반복되는 일상과 잘못된 습관 속에서 삶이 벅차 멈춰 서게 됐다”며 “출가 기간 동안의 수행은 매순간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었고, 집착이 고통을 만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다시 고해의 바다로 돌아간다”며 “살다 보면 거센 파랑을 마주하겠지만, 이곳에서 스님들과 그대로 바라보는 연습했던 것을 기억하며 물러서지 않고 파도를 타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맺어진 인연을 떠나보내기 아쉽지만, 인연 따라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라 믿는다”며 대웅전 부처님과 스님들, 도반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했다.

정지운(법일) 씨도 “내면이 허하고, 자극에도 쉽게 흔들렸는데 출가 경험을 통해 그 원인이 중심을 나에게 두지 않고 상대에게 뒀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따뜻하게 반겨준 스님들과 도반들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안해졌고, 내 마음의 중심을 잡는 방법을 배우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이 4월 28일 봉행된 대행 선사 열반 13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대행 선사의 영전에 헌다하고 있다.

한마음선원, 대행 선사 열반 13주기 추모

4월 28일 본원서…1천 대중 참여
세계 포교 여정 그려낸 다큐 상영

한마음 주인공 관법으로 생활 속 마음수행의 가르침을 전한 선지식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열반 13주기 추모다례재가 봉행됐다.

한마음선원(이사장 혜수 스님)은 4월 28일 안양본원에서 ‘묘공당 대행 선사 열반 13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했다. 이날 추모다례재에는 본원 및 국내외 지원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해 대행 선사의 향훈과 가르침을 되새겼다.

다례재에서는 대행 선사 열반 추모특집 다큐멘터리 ‘세계 포교의 길 3부’ 영상이 상영됐다. 다큐에서는 대행 선사와 후학들이 창건한 해외 지원들의 역사와 현황을 조명했다. 특히, 해외지원을 다니며 설한 대행 선사의 육성 법문이 나오자 스님과 신도들은 눈시울을 붉혔다. 1부 다큐는 지난해 12주기 추모 다례재에서 상영됐고, 2부 다큐는 최근 봉행된 보름법회에서 대중에게 소개됐다.

혜수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행 선사께서는 수십 년을 법문해주시면서 세계인들을 공부의 길로 이끌어 주셨다”면서 “해외지원 스님들과 현지 신도들이 하고 있는 번역이 원만 성취돼 선사의 말씀 한 자라도 더 잘 전해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법산 대종사는 추모시 ‘만공리 피리소리’를 통해 “참 성품 깊고 깊어 찾아 볼 수 없으나 묘용(妙用)은 자재(自在)로히 뭇 생명 보살피네, 한마음 청정하면 모든 부처 환희하고 대비대행(大悲大行) 대원(大願) 펼쳐 정토사회 이루세”라고 설했다. 신중일 기자

경찰청, 참수리등 점등으로 부처님오신날 경축

4월 29일, “국민의 희망 경찰” 발원
산불피해 사찰 복구 위한 성금 전달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대한민국 경찰을 상징하는 참수리 모양 등에 불이 밝혀졌다.

대한불교경승단과 경찰청 불교회는 4월 29일 경찰청 1층 로비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기념 경찰청 점등법회’를 봉행했다.〈사진〉 참석 대중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경찰을 발원하며 부처님 자비와 지혜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했다.

참수리등 점등 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봉축사가 이어졌다. 진우 스님은 “나라는 한 사람의 마음 등불이 켜지면 그 빛은 곧 동료에게로, 가족에게로, 그리고 이웃 사회로 퍼져나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따뜻한 연등이 되고 동체대비의 마음가짐으로 불국토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라며 경찰의 건강과 평안, 그리고 국민 모두의 안녕과 국태민안을 마음 깊이 기원했다.

이날 점등식에서 경찰청 불교회(회장 이선래)는 진우 스님에게 산불피해 사찰을 위한 성금을 전달하고 빠른 복구를 염원했다.

참석대중은 강현욱·이민영 경찰청 경감이 대표 낭독한 발원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명을 가슴 깊이 새기고 정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들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구조하며 범법의 두려움 안에서 누구나 존엄할 수 있도록 국민의 부름에 언제나 달려가는 호법의 사자가 되게 해달라”면서 “분노와 중압 앞에 마음이 흔들리고, 현실의 벽 앞에 지칠 때마다 부처님 자비의 빛을 만나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말했다.

참수리등은 부처님오신날인 5월 12일까지 경찰청 1층 로비를 밝힐 예정이다.

임은호 기자

가사와 연등에 ‘염원’을 담다

서울공예박물관, 조계종과 특별전
보물 ‘자수 가사’ 47년만 첫 공개

가사(袈裟)와 연등의 가치를 조명하고 그 속에 담긴 염원을 조망하는 특별전이 서울공예박물관에서 열린다. 가사 전시에서는 47년 만에 공개되는 보물 ‘자수 가사’와 서산·사명·벽암대사의 가사 등이 선보이고, 연등회 전시에서는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등(燈)을 감상할 수 있다.

서울공예박물관(관장 김수정)과 조계종 연등회보존위원회(위원장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염원을 담아’라는 대주제 아래 불교 자수공예 특별전 ‘실로 새겨 부처에 이르다’와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5주년 기념전 ‘빛을 띄워 마음을 밝히다’로 나눠 5월 2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된다.

5월 2일 서울공예박물관 안내동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전시를 계기로 가사전법이 지닌 무형문화로서의 가치와 불교문화유산 정통성이 더욱 널리 조명되고 온전히 계승되길 바란다”면서 “연등회가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것처럼 가사 또한 그 정신적 문화적 의미가 널리 알려지고 존중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령 기자


서울공예박물관 특별전 ‘염원을 담아’에서 47년 만에 일반에 공개되는 보물 ‘자수 가사’. 서울공예박물관 소장

